

경상남북도에 분포하는 장석광상의 성인연구

이한영* · 고상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양한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장석의 국내 생산량은 연간 330,417톤이며 총수요량은 462,096톤이다(2000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산자부). 따라서 국내에 분포하는 장석광상의 산출상태 및 성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일차적으로 경상남.북도에 분포하고 있는 장석광상의 성인분류 연구를 시행하였다.

국내장석광의 부존은 화강암류의 관입암체나 주변의 결정질 변성암체에 주로 분포하며 장석광상의 유형별 분류는 1)페그마타이트, 2)우백질화강암, 3)변성암류의 장석농집대, 4)규장암 및 산성암맥, 5)열극충진 및 열수변질대, 6)풍화잔류광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장석광산은 17개이며 대부분이 휴광상태이며 소규모의 채굴상태이다. 대부분이 화성기원이며 교대광상이 2곳, 풍화잔류형이 1곳이다. 개발의 형태는 노천채굴이다. 본역에서는 경상계의 퇴적층과 화강암류가 널리 분포하고 있으므로 장석광산은 화강암류에 집중적으로 배태되어 있다.

장석의 Na+K, Al 함량은 고품질에 속하나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인 Fe함량은 지역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인다. 이들에 대한 자료를 전산처리화, 고품질화 하여 다양한 용도개발이 시급하다.